



밝은 미술 속에서

후쿠카와 미카 | 한국미술 문화연구

(THREE YOUNG ARTISTS FROM KOREA) 6.8~7.13
도로 MDS 갤러리

도로 밝은이거 거리 사무아, 그 혼잡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를 뒤로 한 넓은 길을 거다보면 어색한 MDS 갤러리가 건물에 나타난다. 세세적인 패턴사아아 아아아아 세(三宅 三)의 갤러리다. 아아아아는 특히 최근 몇 년 신세계를 감싸는 외복을 예술에 가능한 한 가까운, 나아가 예술과 교차하는 조형물 자체로 표현해 왔다. 또한 그의 표현행동 하나도 예술을 연출하는 일도 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월드립 원안공 개화제 즈음에서 한국의 예술가들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현황을 표현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모아주기를 매리는 미야케의 의뢰를 받고, 게스트 큐레이터를 맡은 이가 원경훈을 용이대 교수다. 원경훈은 일본음악 경력이 있는데 1999년에 미야케의 추천을 받아 도쿄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적이 있다. 한국과 일본 미술계

의 교류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신재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원경훈은 큐레이터에 있어 한국 현대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이 비엔날레 등 각종 미술경로로 세계 각국에서 제베러 도입되고 동시대 미술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일정시서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이란 이미 형성된 '경쟁'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냉철함을 바탕으로 한국작가를 선택한 그의 시선이 항상 재물을 추구하면서도 '현재'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미야케 및세의 세계와 자연스럽게 서로 불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점에서 이 원경훈의 성공의 단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MDS 갤러리라고 하는 개인 공간건축학 번 시계 무 설계에 걸맞은 질감과 표현력 있는 작가가 아니라 안되었다. 그 결과 신이철·김소과·서

개성 있는 공간을 자랑하는 도로의 한 갤러리에서 한국의 젊은 작가 3인의 전시가 열렸다. 역을 수 있는 예술을 관객과 작품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김소과, 브릭 패턴만으로 무형의 공간을 체험한 서재영, 유기체 형태로 사유적인 성질표를 논하는 신이철. 그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해방이라고 하는 세 작가가 서로 다른 표현으로 무뎠하고 조화하면서 도로의 일각에서 독특한 공간을 연출했던 것이다. 일곱에 들어서서 좌측에는 종이로 만든 둥근 거울들이 곡선을 그리면서 놓여 있는 벽면과 그 반대편에는 건넌 풍류리가 마다에서 한강까지 이어진다. 길로 넓어지는 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정면 안쪽에 산이머진 땅이론 언이 색깔의 스페카과, 풍을하는 켈라나 캔다와 같이 잘린 상물들에게, 그리고 평크의 한국산 모직물이 떨어진 내자에는 무산이 놓이고 텔레비전사 유포 수 작동관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지 유포에 들어선 기본이다. 이 <크레퍼 라운지>라고 제목 붙인 김소과의 설치미술은 '관계'아 작품을 많이 비리도록 유도하는 '작품'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관객이 조이더라도 이곳에서 편안히 오래



왼쪽부터 MDS(2002) 3위부터 첫 번째로 열린 세 작가의 전시 작품: 김소과 2002 <크레퍼 라운지> 신이철 2002 <유기체 형태> 서재영 2002 <벽면의 공간>

머무르게 텔레비전을 본다는 무선에 기대어 될 공간이 또는 과자아 복구형을 잘 넘어가도록 작 품관에게의 불타도 마시면서 감정을 가지게 하 든지는 배려된 준비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스페카과 약 5000 봉지가 모으려 이르도스르권 의도되었다. 과자를 먹다 어갈지도, 먹지 않더라도, 남탕을 지키거나 잔류와 수단을 얻어도 좋다. 단지 여기에는 편의의 하가아 아니라 먹이하 게 서 있거나 간에 관객의 신재와 작품의 공을관 계가 어떠한 형태로도 생기게 된다. 김소과는 미술관에서 머리안으로 작품을 걸어 온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다, 다시 말해 과자와 작품을 '복'으로써 미술을 '취향'을 통해 느끼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작품을 미술관에 가 무아 넣고 마트 속에서서 이러한 개념을 늘어놓 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좀더 '순리'한 신재적 행위를 통해 작품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작법으로서, 그것과 함께 관객을 살아가는 우리에 게 '예술'의 수업을 다시금 상기시켜 '표현'의 발 상을 전환시키 가는 대담한 도발이기도 하다.

사실들의 먹는 행위가 진행되는 라운지에서는 였으로 살짝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종이판 벽에 는, 시해원에 <브릭 패턴>이 한눈에 들어온다. 벽 면에 걸린런 브릭의 그물모양에는 우리의 지금 한 순간을 파악하면서 흘러서 가는 시간간의 무게 나 두께의 흔적이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흔하 게 보이고도 '부일'한 신재적인 정채적 표현으 로서도 기능하는 브릭-벽물이라고 하는 기호를 단서로, 시해원은 오로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지금 자신의 신재가 속수였던 공간, 또는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한 무형의 공간을 재현해 보여 고 시도한다. 텔레프라는 멧기가 쉽고 흔치도 남 지 않는 소재는 공간을 구체화하는 데 매우 적절 해 보인다. 여기에는 불해 미하게 실로스르권으 로 브릭 패턴을 그리는 방법도 아울러 사용된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과 동시에 전혀 다른 시점 이 교차해 사물의 내부와 외부를 재하는 것 같은 실리적인 공간이 나타난다. 게다가 이 켈 러리 공간을 항상 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또한 반대쪽 유포에는 고정된 신이철의 유기 적인 형상은 묘한 리얼리티를 띠면서 피 댄다. <이것이 박제술(Center Taxidermy of Image)>이라고 하는 표본상자에 박제와 같이 배치된 오 브릭, 그리고 유포판에 들어서는 유포그늘과 같 은 유기적인 형태는 상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센터(Center)론 등 상을 둘러싼 시그처를 온례를 신이철은 의재하여 표현하고 있다. 시해원에 오려 거주하면서 미국인이 성적 타부를 게 가는 양상을 지치면보면서, 자신의 나 라과 한국사회에서 타부의 맞서는 방법을 거꾸로 감지해 간다. 그것은 오히려 '전투'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타부에 대항하여, 육양의 주 체와 직체의 구조를 부각시키는 과묵한 지형이 다. 사물의 손과 자질이 함께 호흡하는 클레이 회로를 기본으로, 남다른 초월한 인간이 인자라 고 할 수 있는 '세'라는 형태를 통해 사육적 인 상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은 표본상자 에 있는 모습을 엿보면서 육양이 병발하는 위협

한 형태 속에서 타부의 정체를 읽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가는 관객에게 요 한 제안을 강요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들은 과 자를 먹으면서 기꺼워했으나, 어느 일정은 '한국 인은 스펀지로 손발을 편안하게 대접한다고 는 의견'이 여기에서도 그러하다고 신재에 가득 쓴 슬픈 메시지를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 이 전시물은 그렇게 친절할 '예술'은 아닌 것 같다. 세 작가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객을 참여인도 작품을 걸어 온 작품과 관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다, 다시 말해 과자와 작품을 '복'으로써 미술을 '취향'을 통해 느끼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작품을 미술관에 가 무아 넣고 마트 속에서서 이러한 개념을 늘어놓 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좀더 '순리'한 신재적 행위를 통해 작품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작법으로서, 그것과 함께 관객을 살아가는 우리에 게 '예술'의 수업을 다시금 상기시켜 '표현'의 발 상을 전환시키 가는 대담한 도발이기도 하다. 사실들의 먹는 행위가 진행되는 라운지에서는 였으로 살짝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종이판 벽에 는, 시해원에 <브릭 패턴>이 한눈에 들어온다. 벽 면에 걸린런 브릭의 그물모양에는 우리의 지금 한 순간을 파악하면서 흘러서 가는 시간간의 무게 나 두께의 흔적이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흔하 게 보이고도 '부일'한 신재적인 정채적 표현으 로서도 기능하는 브릭-벽물이라고 하는 기호를 단서로, 시해원은 오로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오른쪽부터 MDS(2002) 3위부터 첫 번째로 열린 세 작가의 전시 작품: 김소과 2002 <크레퍼 라운지> 신이철 2002 <유기체 형태> 서재영 2002 <벽면의 공간>